



SPECIAL STORY

생명친구가 되어주세요.

현장속으로

서울·경기지역 청소년과 함께 하는
자살예방 명동거리 캠페인

월드 On Air

“너와 나, 우리가 함께 만드는 지구촌”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창립 23주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요한 6,51)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창립기념일은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립하신 성체성사의 정신에 따라
나눔을 실천하고 생명을 살리는 평화로운 세상이
한마음한몸운동본부가 꿈꾸는 미래상입니다.

지구촌의 빈곤이 사라지고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천주교 NGO(비정부기구)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창립 23주년을 맞이하여 우리의 비전과 사명을 다시 되새깁니다.



www.obos.or.kr | **2011 Summer Vol.10**

여는 글	02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창립 23주년	
Special Story	04
생명친구가 되어 주세요.	
현장 속으로	08
서울·경기지역 청소년과 함께 하는 자살예방 명동거리 캠페인	
희망의 씨앗	10
장기기증, 송고한 생명 나눔	
행복의 씨앗	12
희망·행복의 씨앗을 심으세요	
월드 On Air	14
“너와 나, 우리가 함께 만드는 지구촌”	
공감, 나누는 세상	16
저도 생명을 살리겠습니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18
“제 안에 새 생명과 주님 새로 모셨어요”	
OBOS NEWS	20



표지이야기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창립 23주년을 맞아 지난 6월 11일 (토) 오전 11시 명동성당 뜰머리에서 본부 홍보대사 양미경 씨와 서울·경기지역 청소년 150여명과 함께 생명수호 천사 발대식을 가지고 명동거리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살예방캠페인을 펼쳤습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한마음한몸 발행일 2011년 6월 20일 통권 제 10호
발행인 김용태 발행처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서울시 중구 명동길 62 가톨릭회관 413호
편집디자인 굿모닝컴 글·사진 홍보팀
출력·인쇄 프라이트 주소변경 및 문의 후원관리팀
| 02.774.3488 | obos@catholic.or.kr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서 발행하는 계간지 “한마음한몸”은 후원자분들에게 무료로 배포됩니다. 한마음한몸의 내용은 인터넷 (<http://www.obos.or.kr>) 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소식지의 저작권은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있습니다.
Copyright©ONE BODY ONE SPIRIT, all rights reserved



사람들은 ‘단절’을 경험한 경우 외로움과 함께 주변 상황을 더욱 어둡고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단절을 경험하는 이들에게 주변에서 적절한 반응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들은 희망이 없음을 느끼고 더 이상 세상과 연결되는 끈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자살을 구체화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의 주변 사람들이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 2009년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된 33개 국 중 자살률 1위,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31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살은 10대~30대 사망원인 1위에 해당하며, 하루 약 42명, 34분에 1명이 자살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나 교통사고의 경우와는 달리 자살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임을 생각해볼 때 자살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심각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왜 많은 이들이 자살을 하는 것일까요? 많은 이들이 다양한 생각, 이유, 상황들로 자살을 생각하지만 모두 자살을 시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자살을 실행하는 이들은 몇 가지의 공통된 특성이 있는데 그 중 ‘단절’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감정을 나누고 지지를 받으며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진 경우 즉, 단절을 경험할 때 외로움과 함께 주변 상황을 더욱 어둡고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단절을 경험하는 이들에게 주변에서 적절한 반응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들은 희망이 없음을 느끼고 더 이상 세상과 연결되는 끈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자살을 구체화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의 주변 사람들이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주변의 자살을 생각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요? 바로 ‘지속적인 관심’입니다. 흔히 ‘정말 자살할 사람은 남에게 자살 의도를 밝히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 살펴보면 자살할 의도가 있었던 사람들은 주변에 그 의도를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모두가 직접적으로 ‘나 자살할 거야.’라는 표현을 하지는 않습니다. 행동이나 언어를 통해 간접적으로 자신이 자살할 의도가 있음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중요한 것은 ‘관심’과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이들이 어떠한 특성이 있으며, 어떻게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사소한 변화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알 수 있는 관심이 필요합니다. ⊕



1.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교육중 성경퀴즈를 풀고있는 문정2동성당 주일학교 학생들
2. 자살의 오해와 편견에 대한 O·X퀴즈를 풀고 있는 학생들

자살 유가족에게도 우리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자살 유가족들은 슬픔, 부끄러움, 후회, 분노, 죄책감, 자살을 둘러싼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상처, 소통의 어려움 등의 감정들을 복합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자살 유가족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주변인들과 충분히 나눌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고, 치유 과정을 통해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데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자살 유가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는 자살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자살자의 부모, 배우자, 친척, 친구 등을 말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자살예방 지침서에는 ‘자살은 과급효과를 갖고 있어 한 명이 자살할 경우 그 영향을 받는 사람은 5~10명’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한해 자살자수가 1만 5천명을 넘는 수임을 감안하면, 7만 명 이상이 자살로 인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살 유가족들은 어떠한 감정으로 인해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다름은 머느리를 자살로 잃은 신학자 부부가 쓴 글입니다.

동시에 나는 등골이 오싹함을 느꼈다. 왜 아무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던가? 왜 아무도 나누지 않았나? 왜 우리는 그 사건에 대해 침묵하고, 소문을 물어버리고, 현실을 부인하며, 수년 동안 우리 자신을 괴롭혀왔을까? 그것은 우리처럼 자살자가 있는 기독교인 가족은 없을 거라고(또는 거의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직도 “용서할 수 없는 죄”라는 의식의 멍에 갇혀 있지 않은가? 우리는, 만약 우리가 믿음이 좋다면 믿음이 약한 형제자매가 갖는 문제를 경험하지 않을 거라는 잘못된 신학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지 않은가? 마음 속 깊이 정말 선한(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질병과 고통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많은 기독교인들에게는 복음이 약속한 해방을 부인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다. 물론 우리는 온 세상에 “우리 가족 중에 자살한 사람이 있다”는 선언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우리는 조용히 잊으려고 노력하며 낙인이 없는 정상적인 삶과 관계를 다시 시작하고 싶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¹⁾

위의 글에서 나타나듯이 자살 유가족들은 슬픔·부끄러움·후회·분노·죄책감·자살을 둘러싼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상처, 소통의 어려움 등의 감정들을 복합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자살 유가족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주변인들과 충분히 나눌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고, 치유 과정을 통해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심한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우울증 혹은 자살시도의 위험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살 유가족들이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들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살자와 유가족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1) 자살예방연구회(수원시 자살예방센터 연구사업의 일환)에 의해 번역되었으며, 제7회 서울시자살예방포럼 자료집에서 인용함.

‘생명친구가 되어주세요.’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에서는 우리 모두가 생명지킴이가 되어 자살예방을 위한 활동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합니다. 캠페인을 통해 일반인과 천주교 신자들을 대상으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홍보를 통해 자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1 생명친구가 되는 방법

하나, 10만 수호천사 되기

수호천사가 되어 자살예방 활동 및 관련 정보들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내 주위의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 관심을 갖는 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둘,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 참여하기

교육을 통해 주위의 자살 위험에 처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셋, 후원 참여하기

후원을 통해 자살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극복 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 할 수 있습니다.

2 자살하려는 사람을 돕는 방법

- 주의 깊게 자살의 징후를 살핀다.
- 자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다. 질문은 직접적인 형태로, 자살에 대해 공개적이고 자유롭게 질문한다.
- 감정을 표현하게 하고 그 감정을 수용한다.
- 자살이 옳은지 나쁜지 또는 심리상태가 올바른지 잘못되었는지 논쟁하지 않도록 한다.
- 인생의 가치 또는 도덕관으로 설득하지 말아야 한다. 억지로 무언가를 하도록 다그치지 않는다.
- 결정적 묘수를 제공하려고 조언하지 않는다.
- 왜냐고 묻지 않는다(이런 질문은 심리상태를 방어적으로 만든다). 감정을 동정하지 말고 공감하도록 한다.
- 쇼크 받은 듯이 행동하지 않는다(이런 태도는 거리감만 만든다).
- 대안이 가능할 것이란 희망을 주도록 한다. 단 그럴듯한 확신을 주지 않아야 한다.
-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 자살도구를 치우고 정신과 의사나 자살예방 전문기관에 도움을 청한다.

출처 ● 한국자살예방협회 자살예방안내서

3 자살의 징후

구분	언어적	비언어적(행동)
직접적	• 일기, 그림, 노트, 시 등에서 죽음 암시 • 자살 후 발견되었을 때의 모습에 대한 관심. • 가족에 대한 죄의식을 표현.	• 약을 사 모으거나 위험한 물건을 감춘 것이 발견, 자해, 자살시도, 중요한 소유물 정리 • 자살사이트나 엽기사이트에 심취함.
간접적	자기비하의 언어표현, 실연, 이루지 못한 사랑을 미화시키는 내용의 대중음악에 심취함.	• 죽음에 대해 관심, 농담으로 자살에 대한 계획을 말함, • 감정과 관련된 신체적 불편함 호소. • 혼자 외롭게 행동하며 대화 회피, 심한 폭력, 반항적 행동, 태도 변화, 우울감 해소를 위해 타인에게 의지함.
상징적	자살을 모험적이고 로맨틱한 것으로 생각하고, 외모에 대한 정상적인 관심이 부족하다. 식사와 수면상태가 평상시 보다 지나치게 늘거나 주는 상태.	

4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전화상담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위기상담전화
1599-생명친구(3079) (월~토 10:00~21:30)
자살예방핫라인 1599-0199(24시간)

사이버상담실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www.생명친구.org
한국자살예방협회 사이버상담실 www.counselling.or.kr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창립 23주년 기념

서울·경기지역 청소년과 함께 하는 자살예방 명동거리 캠페인



캠페인에 참여한 150여 명의 청소년 대부분은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의 '청소년 생명학교'를 통해 생명 존중 및 자살 예방 교육을 받은 학생들로 이들은 앞으로 '생명수호천사'로서 지역사회 곳곳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 한국의 자살률, 인구 10만명 당 31명, OECD 국가 33개국 중 자살률 1위! 지금 이 순간에도 34분마다 1명이 자살, 우리의 소중한 생명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자살을 하려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위험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를 미리 알아채고 자살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빨리 발견해 그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자살로 가는 길목을 차단할 수 있게 지켜주고자 "청소년 생명수호천사"가 태어났습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본부장 김용태 신부)는 창립 23주년을 맞아 지난 6월 11일(토), 오전 10시, 가톨릭회관 1층 대강당에서 기념미사를 드린 후, 오전 11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본부 홍보대사 양미경 씨와 서울·경기지역 청소년 150여 명과 함께 생명수호천사 발대식을 가지고 명동거리로 나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살예방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 날 첫 발을 내딛은 '생명수호천사'는 자살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주변 친구들에게 생명지킴이가 되어주려는 청소년들의 모임입니다. 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150여명의 청소년 대부분은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의 '청소년 생명학교'를 통해 생명 존중 및 자살 예방 교육을 받은 학생들로 이들은 앞으로 '생명수호천사'로서 지역사회 곳곳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는 다양한 생명운동을 전개해온 한마음한몸운동본부가 자살률이 높아지는 한국 사회에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자 지난해 3월 설립하여, 일반 시민을 위한 전화(☎1599-3079) 및 사이버상담실(<http://www.3079.or.kr>)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8,094건의 전화 및 사이버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청소년을 위한 생명존중 교육인 '청소년 생명학교'는 2010년 하반기부터 운영을 시작해 현재까지 서울·경기지역 10여개 학교에서 진행됐습니다. ⊕



1.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열린 생명수호천사 발대식
2. 자살예방 캠페인 명동거리 행진
3. 캠페인 참여 학생들에게 새싹화분 나눠주기
4. 홍보대사 탤런트 양미경 씨의 안내로 가족과 친구에게 '사랑의 엽서'를 보내고 있는 군인 아저씨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 위기상담전화 1599-생명친구(3079) ● 사이버상담 <http://www.3079.or.kr>



장기기증, 숭고한 생명 나눔

글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부분부장 민경일 신부

... 그리스도교 신앙의 출발점은 바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사람이 되신 하느님, 인류의 구원을 위한 그분의 수난과 십자가 상 죽음, 그리고 세상의 모든 죄와 어둠과 죽음을 이겨 낸 그분의 부활. 이는 참으로 아름다운, 그리고 위대한 사랑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분의 부활이 더욱 아름다웠고 위대했던 것은 그분의 부활이 그저 그런, 보통의 죽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위한 '내어 줌'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

1. 지난 2/16(수) 장기기증 확산운동인 '희망의 씨앗 심기 선포식'에 참석한 봉사자가 김수환 추기경을 닮은 환한 웃음을 짓고 있다.



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몸과 피를,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모든 이를 위하여” 내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인지,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상상조차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를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따르고 싶고, 본받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분처럼 살 수 있다면, 그분처럼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일상에서 아주 작은 실천으로 그분의 사랑에 -상당히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당신의 생명을 우리와 모든 이를 위하여 내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또 다른 이들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내어 주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함께 벌이고 있는, 뇌사시 장기기증 운동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병고로 인해, 혹은 사고로 인해 삶의 빛이 꺼져 가는 이들에게, 자신의 장기만으로는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이들을 위해, 우리의 일부를 내어 줌으로써 그들에게 생명을 되찾아 주겠다는 서약을 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벌이는 장기기증 운동은 ‘뇌사시 장기기증’ 운동입니다. 즉, 병사나 노환에 의한 사망 등 일반사의 경우에는 서약을 했다 해도 실제 장기이식으로는 연결되지 않는 수가 더 많습니다.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님의 경우처럼, 각막이식 정도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이 운동을 계속 벌이는 것은, 생명의 빛이 꺼져 가는 이들에게 좀 더 많은 가능성을 우리가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우리들 서로가 서

로를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 줌으로써, 서로의 생명을 살리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이들의 평균 대기 시간은 370일을 훌쩍 넘습니다. 장기이식을 받아야만 생명을 이어 갈 수 있는 환우들에게 1년 이상을 기다리라는 말은,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지옥과 같은 체험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작은 서약 하나로 희망을 전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어디로 가져가지도 못하고 이 땅 어딘가에 두고 가야 할 우리의 그 ‘몸’을 내어 주겠다는 서약 하나로 말입니다.

그 옛날 주님께서 우리와 모든 이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통째로 내어 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사랑이지만, 어쩌면 그것은 주님께서 하셨던 사랑을 그대로 본받는 일이지요, 또 하나의 위대한 사랑의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만물이 아름답게 활짝 피어난 이 아름다운 계절, 우리 한번 주님의 사랑에, 그 아름다운 나눔에 함께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

* 본 글은 본부 부분부장 민경일 신부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월간 <생활성서> 2011년 6월호 특집 ‘대한민국 가톨릭신자가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일’ 9가지 중 하나로 장기기증을 추천, 게재한 글입니다.

장기기증 희망신청 문의

● 문의 1588-생명살이(3042)

※ 장기기증 등록을 원하는 경우 우편으로도 장기기증 안내책자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행복의씨앗



하루 100원 모으기
소중한 100원, 큰 나눔의
씨앗입니다(정기후원신청)
02.774.3488

**아프리카·아시아
빈곤퇴치**
1005-684-077777(우리)
(재)천주교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생애 첫 기부·
기념일 기부**
돌·백일, 특별한 날에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세요.
02.727.2267

사랑의 저금통
개인용 환경저금통·
매장용 저금통을 보내드립니다.
02.727.2267

긴급재난 구호
우리의 나눔이 치유의 기적을 만듭니다.
1005-785-119119(우리)
(재)천주교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유산나누기·천사보험
우리가 남긴 유산이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쓰입니다.
02.727.2294

**ARS 후원·
신한카드 포인트 기부**
060-700-1117(ARS후원)
www.arumin.co.kr(신한카드)

**재능기부
국제청년자원활동
봉사활동**
02.727.2287

배너나눔·해피빈
인터넷으로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나눔운동을 알려주세요.
happylog.naver.com/obos
www.obos.or.kr

희망의씨앗



장기가증희망신청
한마음한몸장기증센터
1599-생명살이[3042]

백혈병·난치병어린이 돕기
454-005324-13-044(우리)
(재)천주교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헌혈·헌혈증 기부
까저기는 한 생명을 살립니다.
02.727.2268

장기이식대기자 돕기
이식비용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생명의 불씨를 살립니다.
327-05-023289(신한)
(재)천주교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신청
백혈병(혈액암)환자들의
희망이 됩니다.
02.727.2268

자살위기사담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www.3079.or.kr
1599-생명친구[3079]

희망·행복의 씨앗을 심으세요



스마트폰으로 스캔하
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질병의 아픔과 가난의 고통 속에 절망에 빠진 이웃들을 위해 '희망·행복의 씨앗'을 심으세요. 이 씨앗은 우리의 이웃들과 내 마음에서 함께 자라나 큰 희망과 행복의 열매를 맺고 세상을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나눔을 실천하며 다른 이들에게 '희망·행복의 씨앗'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기 나눔을 실천하며 다른 이들에게 ‘희망·행복의 씨앗’을 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나눔을 꿈꾸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9살 채원이의 세번째 사랑의 저금통

... 2009년, 2010년, 2011년 매년 봄이 되면 꼬마 천사의 저금통이 본부에 도착합니다. 올해는 채원이의 아버지가 채원이를 대신해 편지와 저금통을 배달해 주셨습니다. 채원이와 본부의 인연은 지난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채원이(당시 7세)는 TV에서 가난과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프리카 또래의 친구들을 보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동전을 모아 할머니와 함께 처음으로 본부를 방문(2009년 4월) 했었습니다. 1년에 한번씩 꼬박 꼬박 세 차례에 걸쳐 저금통을 기부하는 채원이. 작지만 큰 사랑을 실천하는 채원이의 고사리 손길에서 오늘도 우리는 희망을 발견합니다.



... 부산여상 이광중(펠릭스, 58, 부산 성지본당) 선생님이 최근 본부에 1,0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겨주신 2,000만 원 중 절반을 지구촌 빈곤 청소년을 위해 써달라고 전해준 것입니다. 본당 빈첸시오 회장으로 봉사하면서 나눔이 생활화 되어 있는 이광중 선생님은 “아버님은 살아 계실 때 ‘어렵고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라’고 늘 말씀하시곤 했다”며 “아버님 뜻을 따라 유산 중 일부를 지구촌 청소년들을 위해 기부한 것이며, 나머지도 국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내어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디딤돌이 되며 나눔 문화 확산에 씨앗이 되어주신 이광중 선생님의 나눔은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쓰일 것입니다.

주식 투자 이익금 기부

... 주식 동호회 ‘락희’ 최지철(루가, 55, 서울 서초3동본당) 회장은 최근 주식 배당금 일부를 본부에 보내왔습니다. 헌미현금 봉헌의 달을 보내면서 본부가 전개하고 있는 지구촌 빈곤퇴치를 위한 청소년 지원사업에 동참하자는 뜻에서입니다. 락희 회원들은 지난해 주식 배당금의 10%인 18만원을 기부하면서 앞으로 1년에 한 차례씩 지속적으로 수익금을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주식투자와 관련된 뉴스 중에는 누군가 고수익을 올렸다가거나 파산했다는 등 사행심을 부추기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소식도 많지만, 이들의 기부는 주식투자를 어려운 이들을 위한 나눔으로 선용하는 아름다운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 2010년 3월 8일 문치호 미카엘, 문치연 라파엘, 두 아기천사가 태어났습니다. 올해 3월 첫 돌을 맞은 치호와 치연이가 가족이 생애첫기부를 위해 본부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문치호 미카엘, 문치연 라파엘, 두 대천사는 지구 반대편 빈곤으로 인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나눔을 실천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서는 결혼 전부터 주보를 보시고 생애첫기부 실천을 약속하셨다고 합니다.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는 부모님 덕분에 우리 아기 기부자들이 살아갈 미래는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치호와 치연이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서 세상에 기쁨의 씨앗을 나누어 주는 천사가 되길 기도합니다.

미카엘, 라파엘 아기천사들의 나눔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지구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

“너와 나, 우리가 함께 만드는 지구촌”

글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국제협력부 박진솔

“저는 7일 동안 햄버거를 안 먹겠습니다.”

지난 5월 21일 토요일, 원목중학교 행복수업 동아리 1학년 학생들이 본부를 찾아왔습니다. 두 시간여에 걸친 지구촌의 굶주림과 온난화에 대한 ‘지구시민교육’을 받은 후 우리가 함께 만드는 지구촌을 위해 ‘7일 동안의 약속’으로 자신의 다짐을 노란색에 쓴 포스트잇에 적어 생명의 나무에 붙인 진우의 다짐입니다.



‘지구시민이 뭐예요?’

지구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 우리는 아직도 지구촌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일상생활 속에서 세

계화의 영향을 받는 부분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이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학교의 원어민 영어선생님부터 외국인 이주노동자들과 다문화가족까지. 이들은 이제 더 이상 '남'이 아니라 '우리'이며, 지구촌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입니다. 이러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지구촌에 존재하는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지구시민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 숨 쉬고 있는 이 지구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명 골프선수는 특정 상표가 그려진 모자를 쓰고 하루에 몇 천만 원을 벌지만, 그 모자를 만드는 태국 노동자들의 일당은 몇 천 원에 불과합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선진 국가이지만,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를 가장 먼저, 가장 심각하게 받는 국가는 개발도상국, 그 중에서도 최빈국일 확률이 높습니다. 지구촌 이웃들은 굶주림과 질병으로 무려 몇 초에 한 명씩 사망하고 있지만, 우리의 작은 관심과 참여로 이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햄버거·숲·해일 ... 어떠한 연관성이 있을까요?

우리가 무심코 햄버거를 먹는 행위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패스트푸드의 대명사나 다름없는 햄버거의 고기(패티)를 얻기 위해 지구상의 열대우림을 비롯한 숲의 상당 부분이 목초지와 목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쇠고기 100g이 들어가는 햄버거 한 개를 만들기 위해 약 5㎡(1.5평)의 지구 열대우림 숲이 사라져 목초지로 변신하고, 햄버거용 쇠고기 1kg을 얻기 위해서는 곡물 8kg과 2만 l의 물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지구상에는 지금도 매년 4000만~6000만 명이 기아로 사망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전 세계 곡물의 40% 정도가 가축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두 개의 빵조각과 채소, 한 조각의 고기 패티가 햄버거의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햄버거 하나를 얻기 위해 소를 키우고 소를 키우기 위한 목초지를 조성하느라 숲을 태워 없앴 탓에 지구온도는 1년에 0.6



1. 학생들이 햄버거 소비가 지구촌 빈곤 및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홍보하는 포스터를 제작하여 발표하고 있다.
2. 조별 활동 중인 원목중학교 1학년 학생들
3. 언북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구시민교육을 하고 있는 박진술간사

도씩 상승하고 온난화로 가라앉는섬, 몰디브 주민은 '나는 오늘도 해일에 떠밀려가는 악몽을 꾸다'고 말합니다. 열대림이 파괴된 땅에서 자란 소가 전 세계로 수출되는 동안 지구는 기후온난화로 인류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본부의 지구시민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처음에는 별다른 생각 없이 교육에 참여하다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는 충격에 빠집니다. 내가 먹은 햄버거 하나가, 사소한 습관 하나가, 지구 전체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학생들의 표정은 사뭇 진지하게 변합니다. 바로 지구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낀 것입니다.

지구촌의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구시민으로서의 올바른 인식이 제고되어야 합니다. '왜?' 불평등하고 정의롭지 못한 문제가 일어나는지, 구조적인 원인을 찾고 근본적인 해결을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구촌이라는 같은 공간에서 함께 살고 있는 이웃과 글로벌 이슈에 관심을 갖고 책임감을 느껴본 적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이미 지구촌의 소중한 지구시민입니다. ☺

※ 지구시민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이나 참여 신청은 한마음한몸운동본부 국제협력부 02-727-2287로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와 함께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요 www.obos.or.kr

저도 생명을 살리겠습니다

본부, 장기기증희망신청자 10만 명 돌파



한마음한몸운동본부(본부장 김용태 신부)가 펼치고 있는 뇌사시 장기기증 희망등록 신청자 수가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989년 캠페인을 시작한 지 22년만의 일입니다. 본부는 이를 기념해 지난 5/6(금), 10만 번째 주인공을 초청해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본부 사무실에서 열린 이날 기념식에서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부본부장 민경일 신부는, 10만 번째 기증신청자인 서울 신사동 본당 이수진(에스텔·서울 신사동본당)씨에게 등록증과 소정의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이수진 씨는, “주변에 신장이나 간 이식을 받은 분들이 새 생명을 얻어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것을 보고 장기기증을 신청했다.”며 “앞으로 장기기증을 이웃에 알리는데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본부가 이 같은 아름다운 생명나눔의 기록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008년 2월, 김수환 추기경의 각막기증을 계기로 뇌사시 장기기증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과거 장기기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던 대다수 국민들은 각막기증 후 생전의 모습 그대로 눈감

고 편안히 계신 추기경님의 모습을 본 후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모두가 갖게 된 것 같습니다. 2008년 말까지 20년 동안 3만 3,432명에 불과했던 누적 신청자 수가, 김수환 추기경 선종 이후인 2009년과 2010년 두 해 동안 6만 1,284명의 신청자가 몰리면서, 지난 4/21(목) 10만 명을 돌파하게 된 것입니다. 장기기증은 죽음을 맞이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또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 나를 내어주는 고귀하고 숭고한 생명나눔의 행위입니다. 2010년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의 통계에 의하면 약 1만4천5백여 명의 환자들이 장기이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실제로 뇌사상태에 빠져 장기를 기증해주신 분들은 268명으로 총 1,100여 건의 이식수술만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현재 국내의 장기기증희망자 수는 72만여 명입니다. 최근 2년 사이 많이 증가한 수치이기는 하지만 국민 전체수와 비교해 보면 1%를 조금 넘는 정도의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본부는 이러한 생명운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명동성당 들머리에 한마음한몸장기기증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확산된 장기기증 운동을 좀 더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고자 주교회의의 승인을 받아 가톨릭장기기증전국네트워크를 구성하였습니다. 올해는 김수환 추기경님 선종 2주기를 맞아 장기기증 문화의 폭 넓은 확산을 위해 장기기증운동의 커다란 테마를 '희망의 씨앗'으로 잡고 가톨릭장기기증전국네트워크와 함께 전국 교구에서 동시에 '희망의 씨앗 심기' 캠페인을 연중캠페인으로 실시함으로써 장기기증을 통한 나눔 문화, 즉 희망의 문화를 지속적으로 전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9월, 불교 및 의료계 공동으로 '한국 장기기증 네트워크'를 발족시켜 장기 기증과 생명나눔 홍보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명 존중 의식을 확산하고 생명을 수호하는 일은 종교를 초월해 모든 종교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종교계는 합당한 방법으로 행해지는 장기기증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기증은 종교를 갖고 있는 신앙인으로서 그 신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장기기증 및 조혈모세포기증, 헌혈 등 생명운동에 신앙인들의 각별한 관심과 동참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신 故 김수환 추기경의 사랑과 나눔의 정신과 故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을 본받아 많은 신앙인들이 생명 나눔 운동에 적극 참여하길 희망합니다. ☺



장기기증 희망신청 문의

●문의 1588-생명살이(3042)

※ 장기기증 등록을 원하는 경우 우편으로도 장기기증 안내책자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뇌사자 장기이식으로 죽음의문턱에서 살아난 김상성씨

“제 안에 새 생명과 주님 새로 모셨어요”

유난히 눈이 부실 만큼 아름답고 화창한 봄날. 오늘은 어느 때와는 달리 특별한 분을 만나기 위해 본부를 나섰습니다. 어쩌면 살아서 다시 볼 수 없었을 만남이기 때문일까? 가로수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는 햇살 한 조각, 바람 한 점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김상성(39, 경북 경산시)씨는 어느 이름 모를 뇌사자가 기증한 심장과 신장을 이식받고 기적처럼 살아난 부활의 삶을 ‘덤’으로 사는 제2의 인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게 됐음을 고백하며, 자신의 새 삶이 다른 어떤 이의 죽음 덕분에 얻은 것임을 알기에 더욱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29살 젊은 나이에 말기신부전증 진단을 받은 김상성 씨는 10년간 하루에 네 번씩 복막투석에 의존하며 실낱같은 삶을 이어왔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찾아온 병마로 직장도 잃고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으며 그렇게 8년간 투석을 해오던 중 2년 전 어렵게 신장이식 수술을 받게 되어 수술 날짜를 잡았지만, 수술 전 검사에서 심장이 좋지 않아 수술이 어렵겠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수술은 미루어졌고 먼저 심장치료를 하며 심장기능이 좋아진 후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심장기능이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나빠져서 가망이 없다는 절망적인 이야기만 듣게 됩니다. 중환자실에서 한 달 이상 사경을 헤매며 치료를 받았지만 나아지지 않았고 숨을 헐떡이며 괴로워하는 환자를 지켜보는 가족들도 고통스럽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확장성 심장근육병증이 급속히 악화된 김상성 씨는 지난해 10월 심장 박동이 거의 멈춘 상태로 병원에 실려 왔습니다. 심장·신장을 동시에 이식받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당장 뇌사자 장기이식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워낙 대기가 많아 심장과 신장을 동시에 기증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약물을 투여해 미세하나마 심장 박동을 유지할 뿐, 손가락 하나 꿈쩍 못하고 누워 있던



넉 달간은 죽음으로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나 죽음의 문턱까지 갔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고통스런 기다림 끝에 지난 2월 25일 극적으로 김상성 씨에게 적합한 공여자가 나타나 심장과 신장을 이식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면서도 살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죠.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상태에서도 하느님께서 살려주시길 간절히 기도했어요.”

환자의 체력과 신체기능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기에 7시간에 걸쳐 심장이식 수술을 한 후 10시간 동안 회복되길 기다리다 다시 5시간이 걸려 신장을 이식해야 할 만큼 쉽지 않은 수술이었습니다. 수술 한 달여 만에 병실에서 만난 김상성 씨는 죽음 문턱까지 갔던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생기가 넘쳐났습니다. 평생 면역억제제를 복용해야 하지만, 기억 없는 고통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자신의 장기를 아낌없이 나눠주고 삶을 마감한 뇌사자와 장기기증을 기꺼이 허락한 유족들, 수천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지원해 준 한마음한몸운동본부와 한국심장재단 등 감사해야 할 대상이 너무 많다는 걸 느꼈어요. 수술 후 의식을 회복하자마자 열심히 일해서 좋은 일 많이 하자고 아내와 다짐했어요. 앞으로 받은 만큼 나누는 삶을 살려고 해요.”

김씨는 “지난 10년의 투병과 죽음의 고통은 정말 끝난 것 같은 인생에서 희망과 기쁨, 사랑과 감사를 알게 해줬다”며 “때로는 고통 자체가 큰 축복이 될 수도 있음을 깨닫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기적적으로 넘기면서 신앙을 다시 찾게 된 것도 큰 소득이었습니다.

“군복무 중에 세례를 받았는데 제대 후 먹고 살기 바빠 신앙을 잊고 살았어요. 세례명도 잘 기억나지 않지만 건강이 좀 회복되면 집 근처 성당에 나가려고요. 하느님이 제 생명을 살려주셨으니 평생 의지하며 살아야죠.”



1. 본부를 통해 나눔을 실천해 주신 많은 후원자 분들의 사랑을 담아 부분부장 민경일 신부가 김상성 씨에게 장기이식대기자 돕기 지원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2. 장기를 이식 받고 기적적으로 부활한 김상성 씨를 방문한 본부 부분부장 민경일 신부와 장기이식대기자돕기 담당 하아순타 수녀가 함께 기도를 하고 있다.

장기이식 대기자 돕기 후원

● 신한은행 327-05-023289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OBOS NEWS

국제협력

한국국제협력단(KOICA) ‘2011년 새마을리더 해외봉사단’ 강의



지난 5월26일, 본부 부분부장 민경일 신부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주관하는 “2011년 새마을리더 해외봉사단 국내훈련” 초청강사로 나서, ‘지구시민으로서의 국제자원 활동’을 주제로 강의를 펼쳤습니다. KOICA 해외봉사단 훈련센터 대강당에서 ‘경상북도 새마을리더 해외봉사단원’ 54명을 대상으로 2 시간동안 진행된 이번 강의는 자원봉사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시작으로 ‘경제적 세계화로, 부는 증대하는데 세계의 절반이 굶주리는 이유’, ‘빈곤에 관한 몇가지 불편한 진실’, ‘인권의 개념’, ‘자원봉사활동의 바람직한 방향’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민 신부는 국제자원활동에 관련된 내용들을 심도있게 다루면서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이끌어 냈습니다.

의정부YWCA에서 ‘지구시민강의’



본부 부분부장 민경일 신부는 지난 4월 19일(화), 의정부 YWCA에서 ‘지구시민의 의미와 지구문제’를 주제로 “지구시민 특별강의”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지구시민 강사 양성 과정’ 수강생을 대상으로 다문화시대에 살고 있는 한국시민이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이해하고, 차별하지 않으며, 지구촌 시민의식을 갖도록 하는 자리였습니다.

아이티 3차 현장방문



본부 국제협력부는 지난 5월 24일(화)부터 6월 6일(월)까지 아이티를 방문하여 중장기 재건사업으로 자원중인 지진피해 학교 건축에 대한 현장 방문과 추가지원을 위한 논의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본부는 포르토프랭스 카리타스와 함께 9개 지역 총 10개 학교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부는 아이티 지진피해 복구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현지 협력단체와 함께 협력해 나아갈 것입니다.

본부, KOICA 민간단체부문 유공기관 감사패 수상



지난 3/31(목), 한마음한몸운동본부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민간단체부문 유공기관으로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 KOICA(코이카)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정부차원의 개발원조를 제공하는 우리나라의 대외 공적개발원조 전담 실시기관으로,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지난 2004년부터 매년 KOICA 민간단체 지원사업기관으로 선정되어 몽골, 팔레스타인, 파키스탄, 캄보디아 등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지역사회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제개발협력에 더욱더 노력하는 본부가 되겠습니다.

생명운동

본부장 김용태 신부, '주간불교'와 특집좌담



한마음한몸운동본부장 김용태 신부는 지난 4월29일 <주간 불교> 주최로 열린 '장기 기증' 특집좌담에 참석했습니다. 불교계 대표적 생명운동 단체인 생명나눔실천본부 회의실서 열린 이번 좌담은 불교계 장기기증 운동의 활성화 위해 주간불교신문사가 봉축 특집으로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마련한 자리로 김용태 신부를 비롯해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신님, 서울대 우희중 교수와 동국대 일산병원 신장내과 김경수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이날 좌담은 우리 사회에서 지금까지의 장기기증 운동에 대한 성과를 되돌아보고 종교계의 역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대안을 찾아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본부 부분부장 민경일 신부, 원음방송 '동근소리, 동근이야기' 출연



본부 부분부장 민경일 신부는 지난 5월17일(화) 원불교 원음방송(FM 89.7)의 종교협력 프로그램인 <동근소리 동근이야기> '항기나는 카페'에 출연, 본부의 장기기증 희망신청자 10만명 돌파 및 그동안 본부의 장기기증운동에 대한 노력과 실적, 의의 등을 되돌아보고, 본부에서 함께 펼치는 조혈모세포기증, 자살예방, 국제개발협력 등 본부의 생명나눔운동과 천주교회의 생명운동에 대한 노력 및

나눔운동에 대해 알렸습니다. 민경일 신부는 종교를 초월해 생명나눔운동의 의미에 대한 질문에 "생명 존중 의식을 확산하고 생명을 수호하는 일은 종교를 초월해 모든 종교의 본질적인 사명임"을 강조하며 "장기기증은 종교를 갖고 있는 신앙인으로서 그 신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종교를 초월하여 많은 신앙인들이 생명 나눔 운동에 적극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생명교육 - 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 장기기증 교육



지난 5/4(수) 서울 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에서 주관하는 "아름다운 생애 마감을 위한 어르신 죽음준비학교 15기 교육"에 본부 생명운동부 김영삼 간사가 초청강사로 나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죽음을 미리 준비하면서 현재의 삶을 보다 행복하고 풍요롭게 보낼 수 있도록 강의와 체험형식의 죽음준비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진행된 이번 강의는 '장기기증'을 주제로 생명운동에 관련된 내용들을 심도 있게 다루어 참가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함께 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모집 캠페인 현황 : 총 2,763명 (2011. 6.10 기준)

- ① 한마음한몸장기기증센터 & 본부भाग : 231명
- ② 광주대교구 생명운동본부 연계 : 총 188명
- ③ 서울대교구 청소년구 대학생사목부, 전국 가톨릭대학생연합회 연계 : 총 1,619명
- ④ 본당 캠페인 : 총 74명
- ⑤ 한마음혈액원 연계 : 총 261명
- ⑥ 일반 대학교 섭외 : 총 390명

사랑과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상계동성당, 아이티 지진 후원금



지난 5월 25일 상계동 성당(주임 김구희 신부)에서 아이티 지진피해 복구를 위한 후원금 1,784,580원을 본부로 보내 주셨습니다. 이번에 보내주신 후원금은 성당에서 신자들이 100원, 200원... 동전을 모아 보내온 것으로 아직도 재해재난으로 고통 중에 있는 아이티 국민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사랑나눔을 실천하여 이 세상을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상계동 성당 공동체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 귀한 정성과 사랑이 새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아이티에 잘 전해져 큰 기쁨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본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웃의 행복한 기부 - 초록약국 의약품 후원



초록약국(약사 김보라 세실리아)에서 비타민과 무기질 보충용 아동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유기농 간식을 보내주셨습니다. 약품상자에는 하나하나 직접 쓰신 사용대상자와 사용법이 정성스럽게 붙여있어서 더욱 감동을 주었습니다. 김보라님은 작년 6월에도 지민약국이라는 이름으로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기부해 주셨습니다. 지구촌 빈곤 청소년을 향한 따스한 마음이 담긴 이 약품들이 아이들에게 희망과 사랑으로 전해질 것입니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는 초록약국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생애 첫 기부

생일을 맞은 아기들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이어가는 사랑실천에 감사 드리며 소중한 마음이 아름답게 꽃필 수 있도록 본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혁 아르테미오

(2010.11.24생 / 父 김태성 / 母 김미란),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김한별 마리아

(2010.2.25생 / 父 김정호 / 母 고새롬), 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임준섭 레오

(2008.3.18생 / 父 임동원 / 母 이차희), 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김수진 헬리나

(2010.11.23생 / 父 김동욱 / 母 임민경), 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문치호 미카엘

(2010.3.8생 / 父 문상수 / 母 최지영), 50만원(지구촌 청소년 교육사업지원)

문치연 라파엘

(2010.3.8생 / 父 문상수 / 母 최지영), 50만원(지구촌 청소년 교육사업지원)

김범준

(2011.2.15생 / 父 김정현 / 母 김윤주), 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정루멘

(2011.2.21생 / 父 정재용 / 母 이종은), 3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김태린 데레사

(2010.3.9생 / 父 김준규 / 母 김지민), 5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강승현 수산나

(1991.9.19생 / 父 강석홍 / 母 김정순), 2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신민수

(2010.3.16생 / 父 신길호 / 母 최지영), 3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이지안 소피아

(2010.3.15생 / 父 이승창 / 母 강수하),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이정호

(2010.3.27생 / 父 이승철 / 母 박선영), 44만원(지구촌 청소년 교육사업지원)

박희원 아델라

(2010.3.19생 / 父 박락웅 / 母 지소영), 1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김선중 가브리엘

(2011.1.2생 / 父 김용상 / 母 서정연),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김래현

(2010.3.30생 / 父 김보균 / 母 이애영), 2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권재이

(2010.3.18생 / 父 권병철 / 母 이보민), 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김혜인 루피나

(2010.3.24생 / 父 김범상 / 母 이소라), 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김재인 세라피나

(2010.3.24생 / 父 김범상 / 母 이소라), 50만원(지구촌 청소년 교육사업지원)

이진서 소피아

(2010.4.4생 / 父 이성규 / 母 문희경), 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오채민 안젤라

(2002.2.20생 / 父 오한승 / 母 홍서영), 2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오선유

(2009.12.26생 / 父 오한승 / 母 홍서영), 3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김한서 요셉

(2010.3.5생 / 父 김상욱 / 母 김민영),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박현수 미카엘

(2010.4.7생 / 父 박봉균 / 母 손영혜), 3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윤태영 다니엘

(2010.3.27생 / 父 윤선웅 / 母 김기욱), 50만원(지구촌 청소년 교육사업지원)

윤하영 로사

(2007.8.27생 / 父 윤선웅 / 母 김기욱), 50만원(지구촌 청소년 교육사업지원)

지윤성

(2011.1.3생 / 父 지성국 / 母 최윤희), 3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김민선 아녜스

(2011.1.14생 / 父 김정현 / 母 김선화), 2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박수경 에디타

(2010.4.20생 / 父 박종우 / 母 손지현), 3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허세린

(2010.4.13생 / 父 허희수 / 母 안리나), 2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임소희

(2010.4.15생 / 父 임규성 / 母 이효원), 2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조예령 헬레나

(2010.4.18생 / 父 조광현 / 母 김동희),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니윤성 아교보

(2010.5.9생 / 父 나병선 / 母 임지영), 100만원(지구촌 청소년 교육사업지원)

김승우

(2010.3.17생 / 父 김보선 / 母 정운정),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최용훈 후고

(2010.4.29생 / 父 최만규 / 母 김현욱), 365,000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정유현 프란치스코

(2010.3.29생 / 父 정윤중 / 母 이제은),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황지윤

(2010.3.5생 / 父 황상묵 / 母 김현수), 6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이은율 프란카

(2010.4.26생 / 父 이원희 / 母 조혜연),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이동열 세례자 요한

(2008.9.13생 / 父 이태현 / 母 이선영), 100만원(지구촌 청소년 교육사업지원)

양하은 요안나

(2010.5.26생 / 父 양춘식 / 母 김진경),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장유진

(2010.4.6생 / 父 장종희 / 母 마리아), 16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김찬웅 이시돌

(2008.5.22생 / 父 김상기 / 母 이정은), 1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이은총 트로이

(2010.9.30생 / 父 이지현 / 母 정진애), 3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희망의 씨앗 심기 장기기증, 제가 하겠습니다

펼쳐하는 곳

'장기기증 희망' 등록 신청서

KONOS

등록번호

나는 이웃에게 새 생명을 주고자 아무런 대가 없이 나의 장기를 기증하고자 합니다.

이름(세례명) |

본당 |

주민등록번호 |

이메일 |

주소 |

장기기증 등록증 발송을 위해 주소를 정확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

핸드폰 |

기증장기 | ☐ 뇌사시 장기기증

☐ 사후 각막기증

☐ 조직기증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의사표시를 원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장기이식등이식에관한법률 제13조 3항에 따라 본인은 장기기증의 취지와 절차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장기기증 희망자로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름

반드시 자필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명)

법정대리인 동의서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을 함께 보내주셔야 합니다.)

법정 대리인 이름

반드시 자필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하루 100원 모으기' 자동이체 출금동의서

□ □ □ □ □ □ □ - □ □

이름(세례명) |

본당 |

주민등록번호 |

이메일 |

주소 |

전화번호 |

핸드폰 |

후원금액 |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기타 (

)원

출금금액 | ☐ 매월 5일

☐ 매월 20일

-출금통장에 '한마음한몸'이라 표시되며, 매달 약정일에 자동 출금됩니다.
-연말 소득을 납입영수증 발급됩니다.

출금은행 |

예금주 |

계좌번호 |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

20

년

월

일

이름

반드시 자필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명)

본인은 자동 계좌이체약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자동이체를 신청한 때로부터 해지 신청을 할 때까지 금융거래정보(거래은행명, 지정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를 상기 거래은행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명의인 앞 통지여부와 관계없이 약관과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하며 위와 같이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소중한 100원, 큰 나눔의 씨앗입니다

하루 100원 모이기 운동

100원이라는 작은 씨앗으로 사랑과 나눔이라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 절취선을 따라 오려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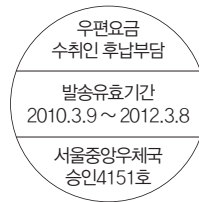


‘행복·희망의 씨앗’을 심는 2011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점점 팍팍해지고 있다고, 살기 힘들어 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희망을 꿈꿀 수 있냐고 한탄합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나눔을 실천하며 다른 이들에게 ‘행복·희망의 씨앗’이 되어 보는 건 어떨까요.

보내는 사람

□	□	□	-	□	□	□
---	---	---	---	---	---	---



접는선
이 부분은 반으로 접으세요



서울시 중구 명동길 62 가톨릭회관 413호
tel 02.774.3488 fax 02.776.7879
www.obos.or.kr

1	0	0	-	8	0	9
---	---	---	---	---	---	---